

비닐하우스 전기 시설 점검



- 비닐하우스 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누전현상 지속 발생
※ 플러그 뽑을 때는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뽑기



- 콘센트 근처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면 반드시 확인



- 한꺼번에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멀티탭 사용 금지
※ 용량 초과로 과열되어 화재 발생



- 배선은 자주 점검하여 교체
※ 배선은 많은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어야 함

스스로 진단하기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가안전 진단표

CHECK LIST

- 비닐하우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
- 노후된 콘센트나 플러그는 즉시 교체한다
- 인화성 물질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두지 않는다
- 멀티탭 콘센트는 모터에 사용하지 않는다
- 플러그는 항상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뽑는다
- 쓰레기나 논두렁 소각은 하지 않는다
- 배선기구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 전선과 차단기는 적정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주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이므로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등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사고 사례

고양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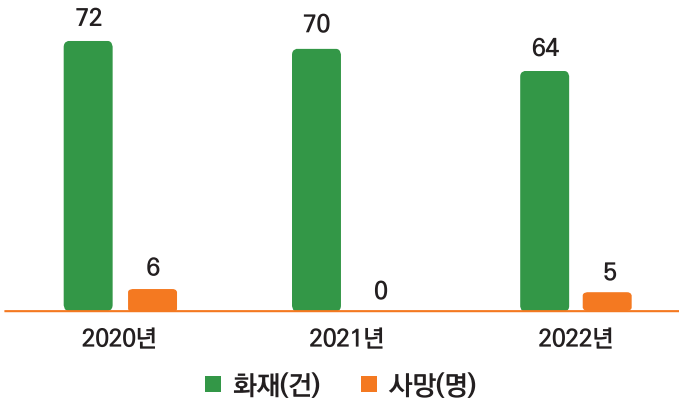
일시	'22년 12월 15일 18시경	
피해현황	사망 1명	
사건개요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	

하남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일시	'23년 1월 7일 17시경	
피해현황	사망 1명, 이재민 2명	
사건개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현황 및 주요 원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현황(경기도, '20~'22년)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8건당 사망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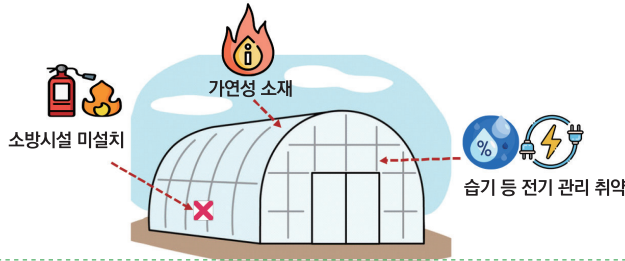
-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은 51건당 1명 사망

* 화재 위험성 노출 : (약 6배) 비닐하우스 > 주택화재

주요 화재 원인

- 비닐하우스 근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전기적 요인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위험성



-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내화구조로 된 일반 건축물과 달리 목재나 볏짚 등 가연성 소재로 자재 구성
- 비닐하우스 내 습기로 인해 누전이 발생하는 등 전기 시설 관리에 취약

화재 예방 수칙

- 진입로 및 비닐하우스 주변 물건 적치 금지**
 -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진압 곤란
- 비닐하우스 주변 쓰레기 소각, 논누렁 태우기 금지**
 - 소각으로 인한 불씨가 비닐하우스와 접촉하여 화재 발생
- 비닐하우스 내 인화성 액체(석유류) 보관 금지**
 - 비닐하우스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여 화재 발생 가능
- 비닐하우스 양쪽 대피로(피난 문) 확보**
 -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닐하우스 양쪽 문을 피난 문으로 사용
- 주기적인 전기점검 실시**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 손상여부 수시 확인하기

국민행동요령



1. 화재 발생 시 즉시대피

- 화재발생 초기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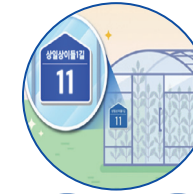
2. 휴대용 랜턴 구비·활용

-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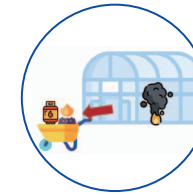
3. 신체 보호하기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젖은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기



4. 119 신고

- 도로명 주소 또는 전봇대 고유 번호를 활용하여 신고하기



5. 가연물 이동시키기

- 안전이 확보된다면 주변에 있는 가스버너, 부탄 가스 등은 최대한 멀리 옮기기